

공동체 소식



연중 제31주일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은총을 베푸시어 저희가 하느님을 합당히 섬기고, 영원한 행복을 바라보며 거침없이 달려가게 하소서.

11월은 '위령의 달'입니다.

안내 : 교회는 해마다 11월 2일에 기념하는 '위령의 날'과 관련하여 11월 한 달을 '위령 성월'로 지내고 있다. 위령 성월은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특별히 기억하며 기도하는 달이다. 이 위령 성월에 신자들은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친지들의 영혼은 물론 죽은 모든 이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한다. 교회는 이 시기에 특히 연옥에서 단련받는 영혼들을 위하여 많이 기도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이번 주간의 성인축일

- 11/09(목): 라테라노 대성전 봉헌 축일
- 11/10(금): 성 대 레오 교황 학자 기념일
- 11/11(토): 투르의 성 마르티노 주교 기념일.

11월 맨하탄 공소 미사

- 일시 : 11/18(토) 오전 11:30.

본당 평신도사도직 협의회 월정기회합

- 일시: 11/19(주일), 교중미사 후.

각 구역 반장님들은 반원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별히 전입 오신 분들에 대해 관심을 더 가지시기 바랍니다.



목자의 소리

"부모는 자녀를 낳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세례성사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신앙의 선물을 받도록 그들을 하느님께 데려가야 합니다. 이리하여 자녀들은 생명과 함께 그들의 삶의 근본 방향과 좋은 미래에 대한 확약을 얻게 되며, 이 방향은 뒤에 견진성사를 통하여 성령의 인호로써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신앙의 빛」 43항 | 그림 임의준 신부

전례 성가

시 작	예 물	성 체	파 견
49	210	155	277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항 복사
금 주	정예진 한나	문호진 안토니오
차 주	김정원 안젤라	정예찬 미카엘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최은미 아네스	김병철 베네딕도 김경희 스킨라스티카
차 주	김주연 세실리아	강영진 라파엘 한춘희 라파엘라

애찬 봉사자

금 주	김경희, 김인자, 안혜진
차 주	김명은, 한춘희, 최선윤

헌금 봉사자

금 주	김대연 요셉, 전용진 라우렌시오
차 주	이내익 베드로, 이우영 가브리엘

우리들의 정성

	영성체	헌금	교무금
10/29	55명	259달러	800달러
김병철, 이우석, 김호원 (총 3세대)			

연중 제31주일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2코린 4,18-

2017년 11월 5일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수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교육관)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전용진 로렌스 703.785.0545 lawyjun@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장: 이우석 프란치스코
M: 816.616.0033

재무: 김병철 베네딕도
M: 913.710.0770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31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 성령의 빛을 비추시어, 아무도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아버지의 자녀들인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 때문에 사람이 되신, 한 분이신 스승의 제자임을 드러내게 해 주시기를 청합시다.

그림 묵상

‘영원한 희망의 시작’

“죄가 죽음으로 지배한 것처럼, 은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의로움으로 지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로마 5,21)

내 삶의 마지막은 불안이 아니라 하느님께로 옮겨감이다. 죽음 속에서 빛이 기다리고 있고 하느님이 나를 자비로이 당신 팔로 안아주실 것이다. 죽음을 통해 나아가는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 죽음의 문턱을 넘어설 것이며 우리에게 자리를 마련해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싸이게 될 것이다.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로로말수도회)

제 1 독서 : 말라키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1,14ㄴ—2,2ㄴ.8-10
<너희는 길에서 벗어나 너희의 법으로 많은 이를 넘어지게 하였다.>



- ◎ 주님, 제 영혼을 당신의 평화로 지켜 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은 오만하지 않나이다. 제 눈은 높지도 않사옵나이다. 감히 거창한 것을 따르지도, 분에 넘치는 것을 찾지도 않나이다. ◎
- 오히려 저는 제 영혼을 다독이고 달랬나이다. 제 영혼은 마치 젖 뎀 아기, 어미 품에 안긴 아기 같사옵나이다. ◎
- 이스라엘아, 주님을 고대하여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테살로니카 1서 말씀입니다. 2,7ㄴ-9.13
<우리는 하느님의 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자신까지 바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분이시고, 너희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 알렐루야.

복음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3,1-12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낮추고 섬기는 사람 돼야



유대인들은 유배를 마친 뒤 성전을 재건하고,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키며 충실히 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열정은 사라지고 백성들을 올바로 이끌어야 했던 사제들마저 나태함에 빠져 주님의 길에서 멀어지자 말라키 예언자는 쓴소리를 전하는데 오늘 제1독서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예언자는 사제들에게 “너희가 말을 듣지 않고 명심하여 내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겠다”(말라 2,2)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제들은 백성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야 했지만 주님의 길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법을 만들어 많은 이를 걸려 넘어지게 했습니다. 또한 법을 공정하게 적용하지 않으면서 분란만 일으켰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온 백성 앞에서 받게 될 멸시와 천대입니다. 오늘 독서에 이어 예언자는 주님의 날이 닥치리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그 날이 오기 전 엘리야 예언자가 와서 모두의 마음을 하느님께 돌릴 것이라고도 예언합니다.(말라 3,22-24) 이 예언들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잇는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라키 예언서를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부분, 곧 신약성경 바로 앞에 배치해 둡니다.

말라키 예언서에 이어 나오는 신약성경 첫 책이 바로 오늘 복음으로 봉독되는 마태오 복음서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서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을 비판합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내용은 오늘 제1독서에서 말라키가 사제들을 비판한 내용과 잘 연결됩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은 성구갑을 넓게 만들고 옷자락 술을 길게 늘이지만 성구갑 속에 들어있는 주님의 계명은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하느님의 법을 이야기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말라키가 비판하던 사제들처럼 자신들의 법, 곧 무겁고 힘겨운 짐을 만들어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마치 하느님의 법을 아는 이들인 듯 존경받으려 합니다. 그들은 잔칫집에서 윗자리를, 회당에서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인사받기를, 사람들에게 스승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합

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스승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뿐이십니다. 하느님의 법을 알려주고 실천하시는 분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제1독서에서 말라키 예언자는 하느님을 두고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마태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아버지이며, 우리는 모두 한 분 아버지의 자녀들이자 형제들입니다. 하지만 마태오 복음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참으로 그분의 자녀요 예수님의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이들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이들뿐이라고 말합니다.(마태 12,50) 이렇게 보니 말만 하고 지키지 않는 사제들,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은 하느님의 자녀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제2독서의 사도 바오로도 자신들이 말로만이 아니라, 수고와 고생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다고 말합니다. 애정을 가지고 자신들을 기꺼이 내어놓은 그들의 모습에서 그들이 전하는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바오로와 동료들은 말로만이 아니라 구체적 실천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이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1테살 2,13)

물론,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도 실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사도 바오로가 다른 점은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느냐 아니면 자신의 법을 따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이들은 오늘 복음이 이야기하듯이 자신을 낮추고 하느님과 이웃을 섬깁니다. 하지만 자신의 법을 따르는 이는 하느님과 이웃 앞에서 자신을 높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 번 하느님과 이웃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 봉사하며 살기로 다짐합시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형제라 불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만이 주님의 날에 저주받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성인의 통공

우리는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습니다. ‘모든 성인의 통공’이라는 말은 다음과 같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두 가지 의미를 지니는데, 곧 ‘거룩한 것들의 공유’와 ‘거룩한 사람들 사이의 친교’가 그것입니다.

모든 성도(聖徒)의 친교가 바로 교회입니다.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에 각자의 선(善)은 모두에게 전달됩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는 선의 공유가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모든 선이 지체들에게 전달되며, 이러한 전달은 교회의 성사들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946~948항 참조)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생동감이 넘칩니다. 교회에는 아는 사람들과 모르는 사람들, 위대한 성인들과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이 모두 속해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는 살아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을 떠난 사람들(아직 연옥의 정화 과정 중에 있든지, 이미 하느님의 영광 속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도 속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어 서로를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호성인이나 좋아하는 성인들뿐만 아니라, 이미 하느님 곁에 있다고 믿는, 이 세상을 떠난 가족들에게도 우리를 위한 기도를 청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와 희생을 통해 아직 연옥의 정화 과정 중에 있는 죽은 이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을 행하거나 고통을 감수하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 유익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모든 죄는 공동체에 손

상을 입힙니다.

우리는 천국의 성인들과 일치하고 그들을 기억하며 축일을 지내고 그들의 모범을 따릅니다. 천국에 있는 성인들도 우리와 함께 하느님을 찬미하며, 우리를 위해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와 천국의 성인들은 천국에 들지 못한 죽은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 신자의 친교를 믿습니다. 곧, 지상에서 순례자로 있는 사람들, 남은 정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죽은 이들, 하늘에 있는 복된 분들이 모두 오직 하나의 교회를 이룬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친교 안에서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과 그분의 성인들이 우리의 기도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복자 바오로 6세 교황).

유한민 마르첼리노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국



가르침

먼저 인사를 건네고
먼저 말을 높이고
먼저 존경하고
먼저 사랑하세요

그것이 당신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가르침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마태 23,12)

